

자기소개서 쓰기,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김주연

(교양학부 교수)

kimjoo@dankook.ac.kr

요약: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생략할 수 없는 핵심 콘텐츠의 하나가 자기소개서 쓰기다. 이 논문은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전략적 문건으로서의 자기소개서 쓰기는 과연 무엇을 담아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고민해야 하는가를 논구한다. 특히, 글쓰기 교육이 취업 준비생이 아닌 신입생에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이들에게 필요한 자기탐구와 자기설계로서의 자기소개서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춘다. 삶의 목표에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역할 모델의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 그 역할 모델을 다름 아닌 교양서적에서 찾게 할 수 있다는 논점은 교양도서목록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좋은 도서목록은 그것을 꼭 어떤 정규 교과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떤 교수가 하는 역할보다도 더 많은 학생들 스스로의 자기 교육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결국, 임시방편적인 요령과 전략에 의해 가능한 자기소개서 쓰기는 한계가 분명하다. 궁극적으로 글쓰기의 어떤 매뉴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탁월한 글쓰기의 비밀을 제공하는 것은, 교양 도서 읽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긴 호흡으로 본다면 쓰기 프로그램이 읽기 프로그램과 적극적으로 연동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된 주장이다.

<주요어> 자기소개서, 좌우명, 생활신조, 역할 모델, 교양도서목록

I. 자기소개서라는 관문

자기소개서라는 관문이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이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대학생이란 아마도 없을 것이므로 자기소개서 쓰기란 대학생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하나의 숙제가 아닐 수 없는 문제이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는 있다. 취업 절차에서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지 않는 직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직장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취업 자체를 재고해 봐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자기소개서는 이력서에다는 다 적을 수 없는 정보들 예컨대 성장 과정, 가정 환경, 성격의 장점/단점, 학교와 사회에서의 활동 사항, 인생관 및 직업관, 지원 동기, 대인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불필요하게 여기는 직장이란 과연 직장다운 직장일지 의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웬만한 직장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기소개서를 요구하고, 자기소개서는 서류 전형 통과한 사람들에게 면접의 기초 자료가 되고 나아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중요한 문건이다. 설령 취업에 흥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학, 자원봉사, 인턴쉽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도 누구나 반드시 한번은 써야 하는 서류가 바로 자기소개서이다. 대학의 글쓰기 교과목에서 중요한 콘텐츠의 하나로서

자기소개서 쓰기가 빠질 수 없는 까닭이다.

문제는 당연히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자기소개서 만큼 비교 우위를 점하려는 경쟁을 전제로 한 전략적 문건도 없다. 비교 우위를 따질 필요가 없을 만큼 자신의 인생 크기와 규모가 남다르다면 물론 자기소개서 따위가 문제될 리 없다. 그러나 경쟁의 생리 자체가 고만고만한 사람들과 다투게 되어 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의 이력 자체가 비교도 되지 않는 사람들과는 경쟁을 하지 않는다. 혹은 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왕 고만고만한 삶이라면, 삶의 재구성으로서의 자기소개서 쓰기가 중요하고 그것을 재구성하고 펼치는 남다른 사고력과 전략이 중요한 것이다. 이 글은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전략적 문건으로서의 자기소개서 쓰기는 과연 무엇을 담아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고민해야 하는가를 탐구한다.

그러나 우리 학교처럼 글쓰기 교과목이 신입생에게 한 강좌로 한정되어 있고 다시 고학년에서 글쓰기를 정규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형편에서는 졸업생 취업 준비 위주의 자기소개서 쓰기란 아무리 논리적 필요성을 역설해도 심정적 동기 부여 자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자기소개서 쓰기에 대한 자발적 동기 부여가 부족하다는 사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글쓰기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에 이 부분을 빠뜨릴 수는 없는 일이다. 대학 초년생들도 동의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동기 부여가 필요한 것이다. 고학년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 동기만이 아닌, 청년의 삶 자체를 설계하는 대학 초년생에게 필요한 자기소개서 쓰기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자기 탐구, 자기 계발, 자기 발견, 자기 성찰, 자기 설계의 글쓰기일 것이다. 이 글은 일반적인 취업 준비생 위주의 자기소개서 쓰기를 다룰 뿐만 아니라, 나아가 대학 초년생의 이러한 자기소개서 쓰기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II. 자기소개서 쓰기에서 점검해야 할 것들

자기소개서는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혀져야 한다. 읽혀지지 않는 문건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리 없다.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 가운데 한가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혀지는 자기소개서는 사실상 드물다. 어떻게 하면 읽혀지는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을까? 이것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사람의 첫 번째 고민이어야 한다. 자기소개서는 어디까지나 독자의 평가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문건이다. 독자 중심의 글쓰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읽혀지는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가독성(可讀性)을 고려해 단문을 써야 한다. 어떤 글쓰기 책들은 아예 장문 자체를 무조건 금기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장문이 기피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장문을 구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는 철저하게 단문을 구사해야 한다. 왜 그런가? 먼저 문장이란 무엇인가를 차분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문장이란 하나의 생각이 완결된 단위이다. 마침표가 찍힐 때, 생각 하나가 완성된다. 단문이란 이렇게 완성되는 생각의 단위가 짧다는 것을 의미하고, 장문이란 반대로 생각의 단위가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긴 문장을 읽으면 글쓴이의 생각을 요령 있게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 문제는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 관대하지 않다는 데 있다. 얼른 읽어서 뜻이 잘 잡히지 않는 문장을 자신의 집중력이나 주의력을 책망하며 거듭거듭 읽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다.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 중에는 누구를 포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배제하기 위해서 읽는 사람이 더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이 읽는 일 자체가 빨리 끝내고 싶은 업무라는 사실을 항상 상기해야 한다. 그래서 읽기 싫어도, 또 집중력이 해이해졌어도 끝까지 읽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독성을 고려해 단문을 구사해야 한다.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문을 쓰는 사정은 대개 다음 두 경우를 벗어나지 않는다. 앞에서 문장이란 하나의 생각이 완결된 단위라고 했는데,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생각 자체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해서 그 생각에 끌려다니는 결과 문장이 길어진다. 또 다른 경우는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은 지적 허영심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기도 한다. 어느 경우나 고쳐야 할 악습일 뿐이다.

단문을 구사하는 것만으로 끝까지 읽혀진다는 보장은 물론 없다. 단문 안에서도 주의해야 할 표현들이 있다. 부사어, 인터넷 용어, 뻔한 상투어 등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부사어는 동사나 형용사 같은 용언을 꾸미고 나아가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한다. 꾸밈 많은 사람이 신뢰를 주지 않는 것처럼, 꾸밈(修飾) 많은 글은 담백한 느낌이 사라져 느끼해지고 결국은 기피된다. 손쉽게 부사를 사용하고 싶은 충동은 억제해야 할 값싼 충동이다. 부사적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가를 궁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겠다. 당신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자. 그 사랑의 정도를 표현하는 데 아마도 십중팔구는 부사를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누르기 힘들 것이다. ‘엄청나게’, ‘하늘만큼’, ‘영원히’ 따위 등등을 동원해야 사랑의 정도가 표현된다고 믿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다. 어떤 초콜릿 광고의 카피 중에 이런 것이 있었다: “난 널 좋아하지 않아(순간 상대가 긴장한다). 나는 너를 사랑해”. 이 광고 카피는 부사어를 동원하지 않고도 좋아하는 것과는 비교될 수도 없는 사랑을 효과적으로 표현해낸다. 이런 표현을 공부하지 않고 쉽게 부사어의 꾸밈에만 의지해서는 결코 참신한 문장을 쓸 수도 없고 주목을 끌 수도 없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사람이 읽는 이에게 어느 정도 튀고 싶다는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모 취업 포털에 근무하는 사람의 말을 빌리면 “인사 담당자의 눈길을 끄는 자기소개서는 처음 서너 줄에서 이미 결정난다. 광고·홍보대행사의 경우 글썽 썽 또한 눈여겨볼 게 분명하다. 많이 읽고 생각해 톡톡 튀는 나만의 표현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¹⁾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가, 하는 튀는 방법으로

1) , 남다른 자신을 PR하라: 자기소개서에도 ‘명품’ 있다, 『중앙일보』, 2005.5.30.

좁혀진다. 이 조언처럼 “많이 읽고 생각해 툭툭 튀는 나만의 표현” 방식을 연마해 놓는다면 다행이지만, 천박한 미사여구를 사용하거나 인터넷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쉽게 될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다. 외화내빈의 미사여구란 오히려 정신의 빈곤을 드러낼 뿐이고, “안나세여” 같은 인터넷 용어를 사용하는 구직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감점하거나 무조건 떨어뜨린다는 통계도 있다. 튀더라도 봐줄 만하게 튀어야 한다는 것이다.²⁾ 물론 튀어도 시원찮은 마당에 뻥한 상투어를 써서 천편일률적인 구닥다리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이는 성의나 구직 열망의 진정성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다. “몇 년 몇 월 며칠 자애로운 부모님 슬하에서 태어났고……” 식의 판에 박은 자기소개서를 쓰는 사람이, 과연 자신이 맡은 일에 스스로 동기 부여를 할 줄 아는 열정이 있다고 판단하겠는가? 열망의 진정성이 차별화된 표현을 낳는 법이다.

이 이외에도 자기소개서 쓰기를 가르칠 때, 점검해야 할 사항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실패하는 자기소개서의 공통점으로 ① 분량이 너무 긴 경우, ② 문법과 철자법이 틀린 경우, ③ 읽기 힘든 경우, ④ 불필요한 정보가 너무 많은 경우, ⑤ 너무 평범한 경우, ⑥ 지나치게 현란한 경우, ⑦ 지나치게 겸손한 경우 등을 꼽기도 한다.³⁾ 새겨들을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미국에서 인지주의 수사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한 린다 플라워(L. Flower)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제시한다.

목표 진술하기. 자기소개서의 시작 부분은 자신뿐만 아니라 독자의 목표와도 일치하는 목표를 진술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에서는 자기소개서에서 제시될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을 함께 결합하여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개념 이용하기. 필자인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력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적 정보들을 여러 가지 능력과 자질들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는 곧 자기소개서는 사실적 정보들에 의해 뒷받침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제공해 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각 단락의 주제문은 단락 안에 있는 정보들을 결합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아이디어 구조화하기. 자기소개서의 전체 구조는 계층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글의 최상위 구조는 자신의 목표와 독자의 관심사를 결합하는 내용의 진술문이어야 한다. 나머지 부분은 이러한 구성적 개념을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각각의 단락에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야 한다. 단순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만을 확대·정교화시켜서 나열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⁴⁾

여기에 인용한 전략들이 언제나 틀림없이 글쓰기의 어떤 결과를 보장해 주는 규칙이나 공식이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인용문의 지침을 분석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목표 진술하기’나 ‘아이디어 구조화하기’에

2) 『대학생 글쓰기 특강』, 인물과사상사, 2005, p.275.
 3) 최성애, 자기소개서는 셀프 마케팅 요약서: 국제화 시대를 겨냥한 자기소개서 쓰기, 『글쓰기의 힘』,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2005, pp.137-38.
 4) L. Flower, 『글쓰기의 문제해결전략』, 원진숙·황정현 옮김, 동문선, 2003, p.124.

서 강조되는 독자 지향성을 유의해야 할 일이다. 이 독자 지향성, 혹은 독자 의식하기는 앞서서도 어느 정도 언급했으므로 여기서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개념 이용하기’는 상론이 필요하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미국 미시간 공대 최성애 교수의 논의를 참조해 볼 만하다. 최성애 교수는 역시 같은 대학의 조벽 교수의 글을 인용하며 최근 미시간 공대 졸업생들의 이력서에 나타난 변화를 소개한다.⁵⁾

미시간 공대 졸업생들의 이력서에 나타난 변화를 요약하면, 예전의 이력서에는 명사와 숫자가 많았는데 최근의 신형 이력서에는 동사 표현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공대 졸업반 학생의 전통적 이력서는 무슨 학과(명사)에서 어떤 과목(명사)을 이수했으며, 어떤 동아리(명사)에서 어떤 직책(명사)을 맡았고, 총 몇 학점(수치)을 이수했고, 평점은 몇 점(수치)이라는 내용이 골자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 기업들은 어느 대학 무슨 학과에서 몇 점 받고 졸업했느냐보다 과연 그래서 어떤 능력을 얻었는가에 관심을 집중한다고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나는 ○○프로젝트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동사), ○○동아리의 대외협력 총무 역할을 맡음으로써 지도력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는 능력을 키웠고(동사), ○○회사에서 산학연계 수업을 들으면서 ○○기술에 통달했으며(동사), 팀워크 경험이 풍부하다(동사)는 등의 내용을 쓴다고 한다.

린다 플라워가 제시한 ‘개념 이용하기’ 항목은, 이처럼 명사나 숫자보다 동사(그중에서도 긍정적, 액션형 동사)를 사용하는 이런 변화와 더불어 이해해야 할 일이다. 물론 미국의 경우와 한국의 그것은 같지 않다. 미국은 한국에서처럼 ‘자기소개서’라고 하지 않고 이력서(또는 경력 요약서, resume)의 첫 장에 ‘커버 레터(cover letter)’ 정도가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기소개서든 커버 레터든 자기의 경력을 동적 활력으로 재생시키는 몫은 고스란히 자신의 역량에 달려 있다는 점은 근본적으로 다름이 있을 수 없다.

Ⅲ. 대학 초년생의 자기소개서 쓰기에서 강조되어야 할 요목

요즘 자기소개서 쓰기의 일반적인 양식은 항목별로 조건화되는 추세에 있다. 즉 내키는 대로 아무 제한 없이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정된 항목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써야 한다. 예컨대 좌우명 및 생활신조, 성장환경, 자신의 장점 및 단점, 취업 후의 직장 생활에서의 포부 등이 주요 항목으로 분할·설정되어 있다. 우리 대학처럼 『사고와 표현』에서 자기소개서 쓰기를 가르치는 교과목이 대학 신입생에게 배정되어 있는 실정에서는 이런 항목들이 사실상 수강생들에게 현실적인 실감을 줄 수 없다. 노출하고 싶지 않은 개인 정보를 노출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언젠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막연한 연습을 감당할 뿐이다. 이런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 자체의 개념을 자기 탐구와 성찰, 그리고 자기 설계의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5) , 위의 글, pp.134-35.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다음의 두 항목이다.

1. 좌우명 또는 생활신조

좌우명이나 생활신조 항목이 자기소개서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항목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다. 그러나 대학 초년생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이런 항목에 대한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학생들 중에는 좌우명이나 생활신조 따위는 구시대의 유물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좌우명이나 생활신조를 가지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작심삼일을 벗어나기 어려운 그것이 무슨 현실성이 있느냐는 항변도 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삶의 현실이 이데올로기의 이상을 좇아가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삶/이데올로기, 현실/이상은 괴리를 거듭해 이제는 각각 제 갈 길을 갈 뿐이라는 하소연은 어느 정도 생활의 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스무 살 안팎의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지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살아야 할 방향으로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삶이다.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좌우명이나 생활신조가 필요한 까닭이다.

좌우명이나 생활신조를 적어보라는 요구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대부분 사실상 제대로 된 좌우명이나 생활신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필자가 가르친 학생들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그들이 가장 많이 좌우명이나 생활신조로 제시한 것은 ‘현재를 즐기자’ 혹은 ‘인생을 즐기자’라는 것이었다. 이런 모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입시를 위한 억지 공부에 억압되었던 본능이 이제 폭발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인들의 오락 문화에 일정하게 감염되었던 말인가, 이도 아니면 모 신용카드 텔레비전 광고에 등장했던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는 광고 카피에 깊은 감동을 받았던 말인가.

아무튼 이런 모토가 요즘의 어떤 개인주의적 세태를 반영하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뭐 아득바득 골치 아프게 복잡한 것 따위는 생각하기도 싫다는 세태의 한 단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는 이런 태도에서 삶의 진정성을 위한 힘든 고투를 찾아보기란 어렵다. 그러나, ‘현재를 즐기자’ 혹은 ‘인생을 즐기자’는 모토는 이 명제를 좌우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학생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수준의 심오한 의미를 함축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의미 함축을 명백한 의미의 외연으로 제시해 그 의미를 붙잡을 수 있는 수준으로 시각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은 삶을 어떤 수준 이상으로 끌어가고 고양시키는 교수 행위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말로는 ‘지금의 매 순간에 충실하라(enjoy the moment)’ 정도로 번역되는 ‘카르페 디엠(carpe diem)’은 본래 라틴어이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이 학생들에게 자주 이 말을 외치면서 더욱 유명해진 이 말은, 영화에서는 전통과 규율에 도전하는 청소년들의 자유정신을 상징하는 말로 쓰였다. 원래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Q. Horatius Flaccus)의 시에 등장하는 이 말은, 사치나 향락에 빠져 인생을 낭비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현재

이 순간이라는 것, 따라서 삶이 아무리 힘겹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말고 주어진 여건을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간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이렇게 흔해빠진 상투어의 의미 함축을 되새긴다면, ‘현재를 즐기자’ 혹은 ‘인생을 즐기자’는 모토를 ‘현재에 충실하자’ 혹은 ‘인생에 충실하자’는 말 정도로 수정 제의하는 데 어느 정도 동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수자와 학습자의 커뮤니케이션이 이 정도에 이르면 다음과 같은 좌우명의 실례를 들어줄 필요도 있겠다. 다음에 제시하는 좌우명은 결코 모범생의 모범답안 같은 공허한 좌우명이 아니다.

……간소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할 것. 미리 계획을 세울 것. 일관성을 유지할 것,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은 멀리할 것. 되도록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할 것. 그날그날 자연과 사람 사이의 가치 있는 만남을 이루어가고, 노동으로 생계를 세울 것. 자료를 모으고 체계를 세울 것. 연구에 온 힘을 쏟고 방향성을 지킬 것. 쓰고 강연하며 가르칠 것. 원초적이고 우주적인 힘에 대한 이해를 넓힐 것. 계속해서 배우고 익혀 점차 통일되고 원만하며, 균형잡힌 인격체를 완성할 것.⁶⁾

스콧 니어링(S. Nearing)의 이 좌우명은 학생들에게 좋은 좌우명의 실례를 제공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좌우명을 보고도 아무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좀 이상한 예외적인 경우이다. 이런 좌우명에는 결코 한 순간에 억지로 쥐어짜낼 수 없는 삶의 과정적 진실이 있다. 우수한 삶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삶과 구별되어 따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런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의 산물일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대학 초년생의 자기소개서 쓰기에서 이 ‘좌우명 또는 생활신조’ 항목은 단지 글재주를 학습하는 글쓰기를 넘어 학습자의 삶 자체에 관여하는 멘토링의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2. 나의 꿈, 내 삶의 목표

대학 초년생의 자기 탐구, 자기 계발, 자기 설계로서의 자기소개서를 지도할 때, ‘좌우명 또는 생활신조’와 함께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고려해 볼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이 항목이다. 대체로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에는 이런 항목이 ‘입사 후의 포부’라든가 ‘입사 후 직장 활동 계획’ 정도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설정한 이 항목은 대학 초년생들을 위해 의도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대학 초년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인생의 좌표 설정일 것이다. 도쿄대에서 지적 망국론을 펼치고 있는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데』의 저자 다치바나 다카시에 의하면, 도쿄대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일류의 성적으로 취업 전선에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학에 들어온 다음의 목표의식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한다.⁷⁾ 국제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저널리스트이자 학자의 진단이기 때문에 더 권위가 있고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다치바나 다카시의 판단에는 적어도 무시할 수 없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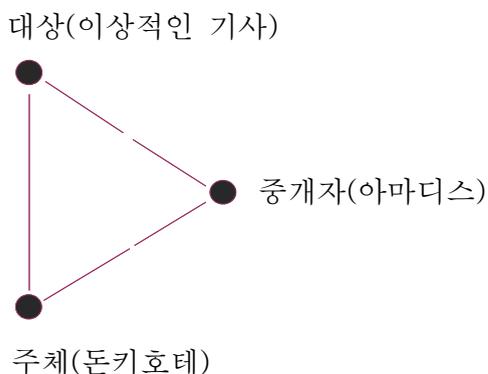
6)S. Nearing, 『니어링 자서전』, 김라함 옮김, 실천문화사, 2000, p.38.

7)다치바나 다카시, 『뇌를 단련하다: 도쿄대 강의 ①인간의 현재』, 이규원 옮김, 청어람미디어, 2004, p.67.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그 목소리의 심각성은 그의 상황 판단이 특정 국가, 특정 대학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어느 대학의 학생이든시간에 인생의 좌표 설정이라는 문제는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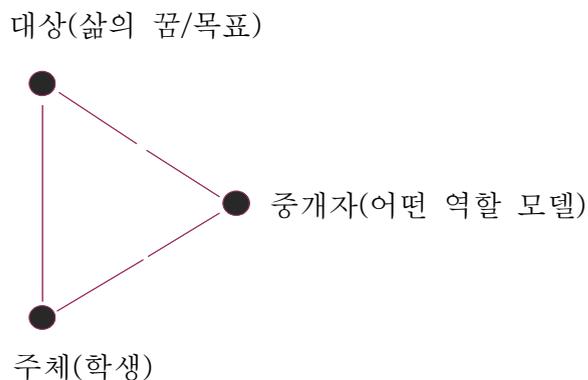
그런데 아무래도 ‘나의 꿈, 내 삶의 목표’란 막연하고 난감한 것이다. 대학을 나와 전공 분야의 직종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정도가 꿈이자 목표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삶의 꿈과 목표란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자에게 실현되는 것이므로 그것에 다가가기 위한 전략 또한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거론할 수 있는 첫 번째 전략은 ‘역할 모델 설정하기’이다. 역할 모델(role model)이란 자신이 닮고 싶은 인물상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이 역할 모델을 닮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써보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역할 모델이 중요한 것일까? 이 문제는 문학평론가이자 문화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르(R. Girard)의 욕망 이론을 들어 설명할 수 있다.⁸⁾

욕망을 일단 생물의 행동을 야기시키는 개체의 동인(動因)이라고 한다면, 르네 지라르는 다른 동물들의 선천적인 본능과는 달리 인간의 욕망을 삼각형 구도로 설명한다. 지라르는 욕망을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생각하여 인간의 모든 욕망은 삼각형 이론에 의해 설명된다고 말한다. 삼각형 이론에서 욕망은 주체와 대상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중개자로 인해 삼각형 구도를 그린다. 인간은 무엇을 욕망하지만 그것을 혼자서 할 수 없고, 욕망의 대상을 지시하는 제3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체는 이 제3자라는 중개자를 모방함으로써 대상을 욕망하게 되는 간접화 현상을 겪는다. 예를 들어, 세르반테스(M. Cervantes)의 『돈키호테』에서 돈키호테의 삶의 목표는 훌륭한 기사가 되는 것이다. 그는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는가? 다름 아닌 아마디스라는 전설의 기사를 모방함으로써 그 목표를 성취한다. 아마디스는 돈키호테가 욕망하는 이상적인 기사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를 도식(圖示)해 보면 다음과 같다.



8)R. Girard,『 거짓과 소설적 진실』, 송의경 옮김,한길사,2001 참조.

이 욕망의 삼각형에서 욕망의 자율성과 자발성은 철저히 부인된다는 점에서 지라르의 욕망 이론은 많은 반론을 부르지만, 주체와 대상 사이의 욕망을 수직적으로 그리는 소설은 중개자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낭만적 거짓이라는 주장 또한 일리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대인의 욕망은 대부분 이런 간접화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학생이 삶의 목표를 이룬다고 했을 때, 그는 아마도 어떤 중개자(역할 모델)를 통해 그 모델을 닮음으로써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경지가 아니라면 말이다. 이를 다시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으로 도시해 보면 다음과 같은 도시가 가능해진다.



역할 모델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득할 수 있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전략은 과연 어떤 역할 모델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를 전적으로 학생 재량에 맡기는 것은 적절한 교육적 처사가 아니다. 우리는 ‘인물이 되려면 인물을 만나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그런데 실상 학생들이 주변에서 본받을 만한 실제 인물을 만나 역할 모델을 삼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럴 때는 훌륭한 책에서 그런 인물을 찾게 할 수도 있다. 스무 살 안팎의 젊은이들에게 훌륭한 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평생 동안 추구해야 할 가치들과 관념들이 제시되어 있는 지적 모험의 장일 뿐만 아니라, 어떤 위인을 역할 모델로 모방할 수 있는 텍스트이기도 한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총장이었던 로버트 허친스(R. M. Hutchins)의 기획을 참조해 볼 수 있다.

시카고 대학은 노벨상의 왕국이라고 한다. 그것은 동문 교수 중 노벨 수상자가 70여 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과거 시카고 대학은 동부 명문 대학에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는 대학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대학이 노벨상의 왕국이 된 데는 로버트 허친스 총장의 공적이 컸다. 로버트 허친스는 존 듀이(J. Dewey)와 쌍벽을 이룬 미국이 낳은 위대한 교육사상가인데, 높은 지적 수준과 철학에 바탕을

둔 진보적 교육의 제창자로서 널리 존경을 받은 인물이다.⁹⁾ 직업 교육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교육관을 비판한 사람답게 허친스에게 교육의 목적은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지 인적 자원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다.¹⁰⁾ 시카고 대학 총장으로서 허친스의 개혁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은 <위대한 저서들>을 선정하여 고전을 읽고 대화형식으로 토론하면서 고전의 주요 사상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¹¹⁾ 진리 탐구와 자기 탐구의 ‘역할 모델’ 발견이 이 위대한 저작들을 읽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위대한 저서 읽기 프로그램’(The Great Books Program)과 시카고 대학 동문 교수들의 노벨상 수상의 인과관계를 논단한다는 것은 물론 무리이지만, 이 양자 사이의 모종의 함수관계를 우리는 부인하기 어렵다. 감수성 예민한 스무 살 안팎의 젊은 시기에 어떤 인물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은, 과학적 논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얼마든지 경험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우리의 논의는 이제 대학 초년생의 자기소개서 쓰기에서 자기 탐구와 자기 발견, 그리고 자기 설계를 위한 글쓰기로서 필요한 항목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나의 꿈, 내 삶의 목표’인데, 이 대목에서는 역할 모델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역할 모델을 좋은 교양 서적에서 찾게 할 수 있다는 것, 여기까지 와 있다. 그렇다면 그 교양 서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나 하는 문제가 그 다음 문제일 것이다. 우리 대학에서도 <단국 교양 101선>이라는, 학생들에게 권하는 권장 교양도서 목록이 있다. 좋은 도서목록은 그것을 꼭 어떤 정규 교과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떤 교수가 하는 역할보다도 더 많은 학생들 스스로의 자기 교육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IV. 자기소개서 쓰기에 비법은 있는가

9)H. Gardner, 『20 움직인 11인의 휴먼 파워』, 이종인 옮김, 살림, 1997, pp.133-160 참조; F. Mayer, 『위대한 교사들』, 성기산 옮김, 문음사, 1998, pp.389-394 참조.

10)R.M. Hutchins, 『미래의 교육』(임한영 감수), 『未來의 教育/法과 人間生活』(세계석학논문전집 5), 대우출판사, 1995, p.154.

11)로버트 허친스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이미 단행본으로 나와 있다. 이 단행본 연구서는 ‘위대한 저서 읽기 프로그램’을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시카고 대학의 허친스와 그의 동료들에게 ‘위대한 저서’란 단지 ‘고전’이 아니다. 그들은 ‘고전’이란 표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위대한 저서’라는 말을 고집했다. ‘고전’이라는 말이 가질 수 있는 고고학적 제한성 때문이다. 이들에게 ‘위대한 저서’란 ‘위대한 아이디어’를 포함한 저서를 의미한다. ‘위대한 저서’는 그들이 찾아낸 102개의 위대한 아이디어들 중 적어도 25개의 아이디어와 관련을 가질 때 비로소 ‘위대한 저서’로 선정될 수 있었다. ‘위대한 저서들’의 대부분은 75개 이상의 위대한 아이디어들과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102개의 위대한 아이디어들과 관련되는 작품도 극소수 있다고 한다. 이들에게 소크라테스의 대화는 플라톤이 그것을 쓴 시대처럼 오늘날에도 절박한 문제들을 제기한다. 또 이 책들 없이는 현대세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위대한 책들 커리큘럼에 바탕을 둔 읽기/쓰기/생각하기/말하기 등의 능력을 배양하는 교과과목이 교양 교육의 본질이 된다. 오늘날 이 프로그램은 시카고 대학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국 각지로 전파되어 <백 권의 고전> 읽기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신득렬, 『위대한 대화:로버트 허친스 연구』, 계명대 출판부, 2003, pp.176-201 참조.

이 글은 지금까지 자기소개서 쓰기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몇 가지 요령과 전략을 제시하고, 나아가 대학 초년생의 자기소개서에서는 무엇이 더 필요한가를 탐구했다. 특히, III장에서 다룬 내용은 당장 자기소개서 쓰기에 필요한 전략과는 무관한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대학 초년생의 자기 탐구와 자기 설계로서의 자기소개서가 절실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삶을 단련해야 좋은 글이 나온다는 필자의 신념 때문이다. 글은 삶을 초월할 수 없는 법이다. 영망으로 살고 영터리로 사는데 좋은 글을 쓰는 경우란 없다. 삶이 나아지지 않고는 결코 좋은 글을 쓸 수 없다. 더구나 상상적인 창작물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 적는 자기소개서는 자신이 산 것 이상을 쓸 수 없다. 이 엄연한 이치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자기초월로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추구해야 하느냐가 문제라면 III장을 참조할 수도 있겠다. 아래에 제시해 보이는 글은 비록 자기소개서 쓰기의 실례는 아니지만, 글쓰기의 요령이나 전략 같은 임시방편적인 충고로는 쓸 수 없는 글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작년, 그러니까 1학년 때, 종팔이(박찬욱 영화감독 딸의 애칭-인용자)는 가훈을 적어 내라는 숙제를 받아왔다. "뭐냐"기에 "없다"고 했더니, 선생님께서 어느 집구석이나 그것 하나씩은 있게 마련이라고 하셨다며 세 시간 동안 울 준비를 시작했다. 하나 짓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겼다.(……) 몇 시간 후, 마침내 나는 이런 문장을 백지에 적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다. '아니면 말고'. 나는 말했다. "뭐든지 멋대로 한번 저질러보는 거야. 그랬는데 분위기 썰렁해지면 그때 이 말을 쿨하게 중얼거려주는 거지".

종팔이는 정말 좋아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본래 아이들이란 늘 '멋대로 한 번 저질러보고' 싶어 미치는 인종이 아니던가. 하지만 역시 어른은 달랐다. 이튿날 종팔이는, 선생님께서 "세상에 뭐 이딴 가훈이 다 있냐"며 새 걸 받아오든가, 아니면 뭔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들어오라셨다고 전했다. 나는 한번 정한 가훈을 무를 수는 없다면서, 즉 이 일만큼은 '아니면 말고'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덧붙였다.

"현대인들은 자기 의지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오만한 태도다. 세상에는 의지만 가지고 이룰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닥쳐오는 좌절감을 어찌할 것이냐.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툭툭 털어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이 경쟁 만능의 사회에서 참으로 필요한 건 **포기의 철학, 체념의 사상**이 아니겠느냐. 이 아빠도 '복수는 나의 것'으로 네 친구의 아빠가 만든 영화 '친구'를 능가하는 흥행 신기록을 세우고 싶었으나 끝내 그 이십분의 일밖에 안 되는 성적으로 끝나쳐야 했을 때 바로 그렇게 뇌 까렸던 것이다. '아니면 말고...'라고"(밑줄 강조-인용자)¹²⁾

영화감독 박찬욱의 '가훈'에 대한 흥미로운 입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가훈'이라는 것이 고색창연한 구태를 벗고 이렇게까지 발달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특히 장난기가 가신 마지막 단락은 단지 그

12) , '소리 아닌 소리'의 진실, 『경향신문』, 2002.10.12.

흔한 체념 그 자체가 아니라, 박찬욱 특유의 체념에 대한 ‘철학’ 혹은 ‘사상’으로 정색을 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는 허허실실 글의 알갱이가 씹힌다. 그렇다고 그 정색이 경색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포기나 체념에 대한 상식 너머를 꿰뚫어보는 박찬욱 특유의 통찰이, 우리에게 평소 인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발견과 깨달음의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기소개서 쓰기에서 ‘좌우명’이나 ‘생활신조’도 이렇게 쓸 수 있을 터이다. 그러나 이런 글은 아무나 못 쓴다. 영화감독만이 쓸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요령과 전략, 그리고 임시방편적인 충고에 의존하는 글쓰기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 한계 이상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삶 자체에 투자해야 한다. 위의 박찬욱의 글도 이를테면 창의적 글쓰기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남다른 창의적인 글을 쓸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¹³⁾ 제대로 된 교양 도서 한 권 읽지 않은 학생이 남다른 글을 쓸 수 있는 비법이란 단연코 없다.

그렇다면 무엇에 삶을 투자할지는 사실 자명해진다. 투자란 물론 어느 정도 손해 볼 수도 있는 모험을 동반한다. 그러나 어떻게 모험 없이 남다른 성취가 가능하겠는가. 자기가 계산한 사적인 이해관계에만 골몰해 있는 한 진정한 자기초월이란 있을 수 없는 법이다. 대학생들이 읽어볼 만한 교양 도서 중에 에리히 프롬(E. Fromm)이 쓴 『사랑의 기술』(*The Art of Loving*)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을 ‘작업의 정석’ 같은 것만을 기대하며 충혈된 눈으로 읽는다면, 아마도 이 지적 모험에 대한 시간 투자가 아깝다고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도 ‘작업’의 기술(art)은 분명 있다. 차원이 좀 다를 뿐이다. 교양 도서는 당장은 무용지물로 보일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글쓰기의 어떤 매뉴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탁월한 글쓰기의 비밀을 제공한다. 조금만 더 긴 호흡으로 본다면 쓰기 프로그램이 읽기 프로그램과 적극적으로 연동되어야만 하는 까닭이다.

참고문헌

- 강준만(2005). 대학생 글쓰기 특강. 인물과사상사,
 김주연(2006). 종합적인 사고 행위로서의 창의적 글쓰기 방안 연구: 대학에서의 실제 글쓰기 교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회론과 비평 제31집.
 김필규(2005). 남다른 자신을 PR하라: 자기소개서에도 ‘명품’ 있다. 『중앙일보』, 2005.5.30.
 박찬욱(2002). ‘소리 아닌 소리’의 진실, 『경향신문』, 2002.10.12.
 (2003). 위대한 대화: 로버트 허친스 연구. 계명대 출판부.
 최성애(2005). 「자기소개서는 셀프 마케팅 요약서: 국제화 시대를 겨냥한 자기소개서 쓰기」, 『글쓰기의 힘』.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13) , 종합적인 사고 행위로서의 창의적 글쓰기 방안 연구: 대학에서의 실제 글쓰기 교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회론과 비평』 제31집, 한국문학회론과 비평학회, 2006.6, p.102.

- 다치바나 다카시(2004).『뇌를 단련하다: 도쿄대 강의 ①인간의 현재』.이규원 옮김. 청어람미디어.
- Flower, L.(2003).글쓰기의 문제해결전략.원진숙·황정현 옮김.동문선.
- Gardner, H.(1997).20세기를 움직인 11인의 휴먼 파워.이종인 옮김.살림.
- Girard, R.(2001).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김치수·송의경 옮김.한길사.
- Hutchins, R.M.(1995).「미래의 교육」(임한영 감수),『未來의 教育/法과 人間生活』(세계석학논문전집 5).대우출판사.
- Mayer, F.(1998).위대한 교사들.성기산 옮김.문음사.
- Nearing, S.(2000).스콧 니어링 자서전.김라합 옮김.실천문학사.